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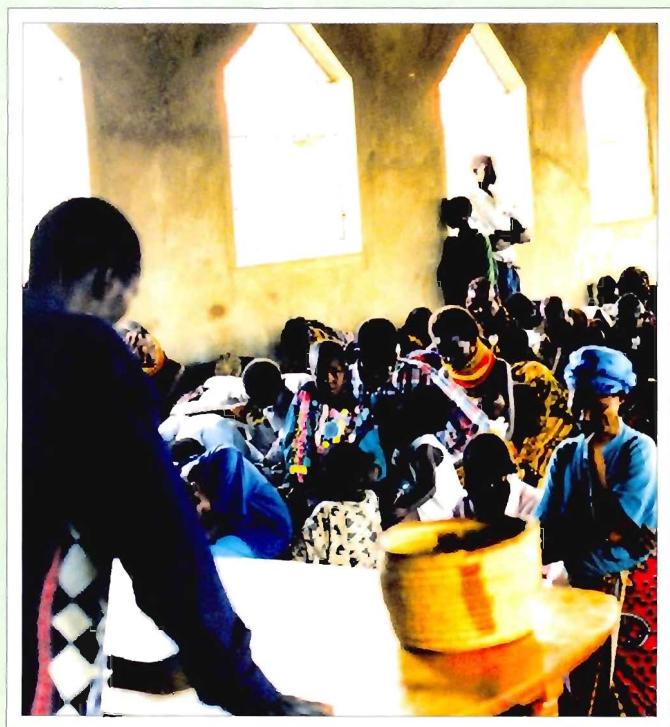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2

1998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창세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2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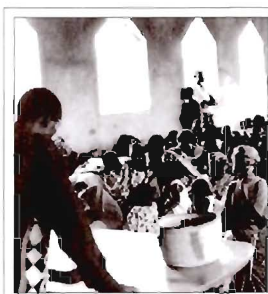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창세기

충현교회 5대 목표

1. 신령한 예배
2. 천국일꾼 양성
3. 민족 복음화
4. 세계 선교
5. 지역사회 봉사



표지 설명 / 우리 교회는 1998년을 '선교 바로 잡기' 원년으로 삼고, 명분과 형식에 매인 선교를 그치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실제적인 선교에 매진해 나가기로 했다.

말씀으로 물러가는 기갈



어느덧 1998년의 첫달을 뒤로 하고 두번째 달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지난 8월 위임식 이후 벌써 7개월째를 말씀으로 섬겨오고 있습니다. 참 빠릅니다.

대개 세월이 빠른 것에 비해볼 때, 우리들의 영혼이 말씀에 순종하여 변하는 것은 참으로 더딘 편입니다. 흥내는 낼 수 있으나 중심이 바뀌는 것은 좀처럼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개월 동안 강단에서 외치고 또 외친 생명의 복음에 대하여 대부분의 충현의 식구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열심히 따라오고 계신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우리는 힘겨운 시절의 한 가운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안해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붙들어 순종해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암 8:11).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굶주림은 돈과 관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살아 있는 여호와와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달에도 각 가정과 구역에서부터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달 중, 교회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들을 통해서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여호와와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성관 위임목사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지역사회 봉사를 온전히 이루
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
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소서.
4. 김성관 위임목사님, 남녀 교역자들, 당회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
기게 하소서.
5.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
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6.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는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
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7.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이 맡은 바 섬김의 도를 다
하게 하소서.
8.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
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충현의 만나

1998년 2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창세기 서론

‘창세기’라는 이름은 1장 1절의 ‘태초에’에서 유래하였다. 창세기는 이 세상의 기원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기원, 죄의 기원 등에 대하여 증거해 주고 있다. 따라서 ‘창세기’라는 이름은 이 책에 정확히 어울리는 명칭이다. 창세기 1-11장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더불어 시작된 구속의 드라마의 우주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다룬다. 곧 구원 역사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서막에서는 아담으로 시작하여 역사의 계승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와, 인류의 거대한 흐름이 어떻게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따라서 많은 족보들이 등장한다. 12-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의 일생과 그들의 일생을 주도해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이 다루어진다. 1-11장의 ‘서막’에서 번뜩이며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 이 부분에서도 계속이어지고 있다.

이 창세기 공부를 통하여 재미있는 성경이야기로 끝나고 마는 아쉬움이 없어지길 기대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치 않는 약속들을 발견하여, 약속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따르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기대한다.

내용의 흐름

1:1-4:26	시작들(창조, 타락과 그 결과)	11:10-25:11	셈과 데라의 자손들 : 아브라함
5:1-6:8	아담의 자손들	25:12-35:29	이스마엘의 자손과
6:9-9:29	노아의 자손들과 홍수		이삭의 자손들 : 야곱
10:1-11:9	그 이후의 자손들 (민족들의 흩어짐)	36:1-50:26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들 : 요셉

“...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1:1)

마 침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되었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언약의 첫 열매였습니다. 수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사라의 권고로 ‘육체를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보고자 했었습니다. 그 결과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언약의 열매로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삭의 출생으로 아브라함은 언약을 신실하게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삭이 젖을 떼기 시작할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자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심각한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당시의 법에는 서자를 얻은 후 적자가 태어나도 서자를 차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민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였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둘을 은혜와 율법, 자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이었고, 그 약속을 이루어갈 사람은 이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때와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가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21:31)

약 속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블레셋 땅의 그랄 왕 아비멜렉도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아비멜렉은 이전에 사라와의 관계로 큰 어려움에 빠질 뻔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 동맹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당시는 민족이 형성되기 전이었고, 누구든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할 수 있는 때였기에 서로간에 동맹을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생존전략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의 동맹관계는 세상에서 물질과 권력으로만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영적인 교훈을 남겨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계약의 형태는 동등계약이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힘의 균형이 비슷한 양자가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상태는 아비멜렉과 비교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동등한 자격으로 동맹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만한 힘과 권세가 없었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힘과 권세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약의 장소를 브엘세바라 이름하였습니다. 그 계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세상에 드러낸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힘과 권세와 배경이 되어 주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합니다.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③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 (22:14)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지위를 얻기까지는 숭한 시험과 도전
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남으로써 과거를 버려
야 했고, 롯에게 가장 좋은 목초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었을 때 현재도 포
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들은 이삭을 바쳐야 하는 도전과 비교할 때
하찮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었기 때문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삼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
으로 올라온 아브라함과 묵묵히 죽음의 제단 위로 올라가 있는 아들 이삭
은 모두가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 중이었습니다. 훗날 히브리
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 때를 평가하여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은 이
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준
비하실 것이라고 이삭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
진 것입니다. 이 시험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를 내려 주시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확실성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더 강한 시험을 통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 명실상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을 주기 위한 통로임을 기억하십시오.

▶ 기도 제목 \ ①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옵소
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성령충만함을 허락하소서. ③ 청지기훈련을 통하
여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사라가 일백이십칠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23:1)

아브라함은 인생의 커다란 슬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그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 술한 시험과 환난의 여정 속에서 약속을 기대하며 가나안을 함께 바라보았던 사라가 가나안 땅에서 한 뼘의 땅도 남기지 못한 채 죽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전체를 주시겠다는 것이었는데, 사라의 무덤을 사기 위해 그 땅 사람들과 흥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매우 안타깝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일지라도 사별의 슬픔 앞에서는 동일하게 아파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묘지를 구입하느라 씨름하는 동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땅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을 한 마디도 내뱉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사고 있는 막벨라 밭 굴을 포함한 모든 가나안 땅이 훗날 그의 후손에게로 넘겨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 가나안 땅의 한 뼘도 안되는 작은 매장지를 사야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훗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만 하는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히브리서의 평가처럼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닌 분명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무덤을 통해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② 출현교회가 신령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③ 계속되는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삭이 리브기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24:67)

보 장은 완벽하다고 할 만큼 매우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환도뼈 언약에 근거한 이삭의 결혼 준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라의 죽음, 아브라함의 노쇠, 이삭의 결혼 등 일련의 사건들이 서서히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구속 언약의 역사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늙었고 아들 이삭은 배필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가나안 여자나 다른 이방 여자가 가운데서 신부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삭의 친족 중에서 신부를 구하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길을 떠나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늙은 종과 그에 맞서서 전혀 겁없이 따라 나서는 리브가, 그리고 리브가를 찾기 위해 들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삭 등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 주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가정을 향해 먼 길을 떠나는 리브가와 저녁 나절 들에서 묵상하는 이삭에 관한 내용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본장의 결혼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삭과 믿음으로 복종하는 리브가에게서 하나님의 순탄한 인도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계속되는 약속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섭리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순항하게 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③ 청지기훈련을 통해 받은 말씀에 따라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쓰주소서.

아브라함의 향년이 일백칠십오세라 (25:7)

본 문에는 사라가 죽은 이후의 아브라함의 뒷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섯 명의 아들을 추가로 얻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합하면 모두 여덟 명의 아들을 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창 12:1)라는 말씀과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창 22:17)는 말씀은 언약의 자손인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약속이었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해 얻어진 자손들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 그의 자손들이 결코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서로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은 오늘날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 인간의 실수가 그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천대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본문은 특히 자녀와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들이 그 형제들끼리 혹은 천대하며 혹은 원수로 여겨 싸우며 살아가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꽃피고 열매를 맺을 것을 생각하며 삽시다.

▶ 기도 제목 \ ①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25:31)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였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따라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어머니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에서에 비해 그만큼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지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러한 일은 아주 어려서부터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믿음의 눈이 밝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에 대해서 단지 운명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2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언은 미래를 내다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예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건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후에 야곱이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산 것이나 아버지에게 에서처럼 분장하고 들어가서 에서의 복을 가로챈 것은 철저하게 언약의 후사가 되고자 하는 믿음에서 계산된 행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에서는 믿음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세상일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석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보석을 기뻐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믿음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이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26:6)

가 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삭은 그랄 지방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삭이 그랄로 피난을 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함께 해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3-4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든든한 보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을 보십시오. 그는 그랄로 피난을 간 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혹시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 되는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도, 그의 자손을 별과 같이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현실적인 궁한 형편을 생각하고 사람들만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삭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였으며 의인 노아도 홍수 후에 포도주 몇 잔으로 인해 하체를 드러내는 수치를 보이고 그로 인해 한 아들의 후손이 저주를 받게 하는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인간은 자만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편에 온전히 서 있는지 늘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장의 위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늘 깨어 있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 서 말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 』(26:28)

이삭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하여 이삭에게 복을 내리셔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백배나 얻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이제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랄 사람들은 이삭의 형통함을 시기합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을 핍박하여 우물을 빼앗습니다. 목축업을 하는데 짐승이 먹을 물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물이 매우 귀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는데 물이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물 쟁탈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삭은 양보합니다. 이곳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저곳으로 옮깁니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며 네 자손으로 번창케 하리라”(24절)는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이삭이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그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다투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에 그랄 왕은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를 해치지 마십시오”(28, 29절). 이것이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와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27:27)

야곱은 이미 오래 전에 형 에서로부터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에서에는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는지 몰라도 야곱에게는 가슴깊이 계산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대신 아버지로 부터 장자의 축복기도를 받는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에서가 사냥하러간 사이에 야곱과 그의 어머니는 집에 있는 염소새끼를 잡았습니다. 이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서 염소새끼의 가죽으로 손과 목을 위장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이삭에게 에서로 속이고 장자의 축복기도를 받았습니다.

한편 뒤늦게 사냥터에서 돌아온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는 사실 야곱에게 분노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다음의 성경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마 7:6, 에서에게 해당됨)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마 11:12, 야곱에게 해당됨).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몫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야곱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을 주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28:3)

과 거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보호 속에 자신의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자권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되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자녀들의 이런 분란을 바라본 이삭 부부는 분명 자신들의 자녀 교육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여태껏 자신들의 방식대로 자녀를 키워왔던 아집에서 탈피하여 야곱을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기기에 이릅니다. 먼저는 이방 우상에 물든 가나안인과 의 결혼을 피하고 선민 곧 동족과의 결혼을 명하면서 야곱을 자신의 품에서 떠나 보냈습니다(1, 2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언약의 정통성이 야곱에게 전수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3, 4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이삭 부부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결국 야곱의 인격과 생애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 양육의 아름다운 모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인의 바른 자녀 양육은 인간 부모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자녀의 근원적인 필요를 채우기보다 순간적이고 현세적인 유익을 채우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가 진정 필요로 하는 생의 근본 문제를 만족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 양육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도는 자녀 양육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자녀를 양육할 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28:17)

인간은 일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습니다. 더러는 이유를 모르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더러는 죄값으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고난을 당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야곱은 잠을 깨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곁에 계심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평안할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존재가 고난시에 가까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우리 곁에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17절). 야곱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알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리브가 밑에 있을 때는 전혀 알지 못하던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야곱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일어나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명명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18, 19절) 그는 고난을 통해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천지간에 경배받을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 기도 제목 \ ① 고난으로 인해 죄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29:20)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하겠다고 말합니다(18절).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원하여 봉사합니다.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마저도 기쁘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억지로 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어 하거나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쁨으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 세월을 의식하지 않고 봉사하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습니다(20절). 이처럼 사랑의 봉사는 세월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한다는 그 감격이 세월의 고통을 잊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 불합리를 초월하여 봉사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라헬 대신 레아를 주고 또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할 것을 요구합니다(27절).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7년을 봉사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합리를 초월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세월을 의식하지 말고 열심히 봉사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사랑으로 하는 봉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케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맡겨 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30:2)

죄 중에 무서운 죄는 질투입니다. 질투를 하면 자기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합니다. 친구나 친지간의 질투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습니다(잠 27:4). 본문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고 합니다(1절). 질투는 눈을 흐리게 하여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치 못하게 하여 상대방을 원망하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원망하게 합니다. 성도는 원망의 마음을 감사로 바꾸어야 합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2절). 이로써 라헬은 질투하게 되었고 불신앙을 품게 됩니다. 질투는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질투심은 불필요한 경쟁을 낳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자기의 몸종을 주어 자식 낳기 경쟁을 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질투 때문에 쓸모 없는 경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여! 거듭나기 전의 죄악된 눈으로 바라보면 질투의 대상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질투는 사라지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질투가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 기도 제목 \ 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간적 질투를 극복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30:26)

우 리에게는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얼마만큼의 성실성이 부여되었는가입니다. 성실한 자는 당당하게 할 말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성실한 자의 변증이 나옵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야곱은 라반의 소유가 많아진 이유가 자신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30절). 사람은 성실히 살지 않았을 때, 나타난 일의 작은 결과가 자신이 이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 일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26절)라고 말합니다. ‘굳이 내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당신 자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실한 자는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지요? 더 나아가 야곱은 라반에게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 값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된다”고 말합니다(33절). 즉, 약속을 지킬 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루는가 하는 것에 따라 성실도가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는 약속을 했을 때와 시간이 지난 후에 마음이 다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약속한 일을 성실히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신실한 성도가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 지키는 성실한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③ 오늘 거행되는 학습·세례식을 통해 대상자나 이미 세례를 받은 자나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게 하소서.

‘나는 벤엘의 하나님이라 … 지금 일어나 그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 (31:13)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갔던 야곱은 하란에서 수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경과했습니다. 그런 나날들 중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귀환 결심을 하게 만든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에 대한 라반과 그 아들들의 불신이었습니다(1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인간의 삶은 자신의 계획과 발걸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 오게 할지라’ (창 28:15)라고 하신 약속을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개인이나 인류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따라 그분의 간섭에 의해 인도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서 일평생 동안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돌아가야 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며 고향을 생각하며 이국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고향 땅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성도의 삶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셔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섭리해 가신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순간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31:44)

고대 근동에서는 겨울 우기가 그친 직후인 봄에 양털을 깎는 ‘목동들의 추수기’를 맞게 됩니다. 양털을 깎는 일은 한해의 경제를 좌우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많은 일손이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일꾼들과 손님이 초청되는 큰 축제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곱은 몰래 가족들과 그동안 모은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에서를 제치고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으로 축복을 받던 그 장면을 연상케 해 줍니다. 이 일 때문에 분개한 라반이 무려 7일이나 쫓아가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비열한 야곱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과 라반간의 화해를 허락하시고 결국에는 화친 언약을 맺도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귀환 명령을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3, 13절) 그 약속을 이행하는 야곱의 모습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명분하에 자신의 의나 자신의 방법이 앞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언행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설불리 행동을 하고 성급하게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구원의 길을 막아 버리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깊숙히 개입하셔서 은혜로 모든 일을 마무리지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32:26)

외 삼촌 라반의 추격에서 간신히 벗어난 야곱은 이제 더 절박한 위기
에 봉착하게 됩니다. 라반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에서 야곱을 쫓
아왔지만 에서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야곱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에서를 만나는 그 자체가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
고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절박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본장에는 하나님
의 인도로 야곱이 고향에 접근하는 장면(1-5절)과 에서에 대한 야곱의 두
려운 반응(6-20절) 및 천사와 씨름하듯 매달리는 야곱의 끈질긴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21-32절). 고향이 가까울수록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자신의 옛 허물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서 가벼워야 될 그의 발걸음이 무
거워만 갔습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야곱은 자신의 생애 중 가장
위대한 한 가지 일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이제껏 자신이 의지했던 잔
피와 재산 등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육체가 불구가 되는 극한 상황 속에
서도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하나님은 그의 인간적인 모든 것
을 완전히 꺾으심으로써 더 이상 자신의 능력과 기질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신 이후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같은 위기 상
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나의 능력, 지혜, 경험 등을 의지하지 말고 오
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 ▶ 기도 제목 \ ① 주여!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게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신학교 사역과 한인교회, 현지인 개척교회
사역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33:4)

하 나님은 압복강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완전히 변화시키신 후에 에서의 불 같은 성격도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성적 기질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20년간 계속되어온 불화가 심화되어서 도무지 화해할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서로를 허물없이 껴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1-11절). 이와같이 인간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에서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야곱이 낮아지되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부르짖었을 때에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것이 기적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문제 앞에서 절망하며 주저 앉아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혹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전혀 아뢰지 않은 채 탄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됩시다.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문제를 보며 낙심치 않게 하시고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하소서. ② 안석렬 선교사(수리남)가 진행하는 인디안 선교에 필요한 교회와 진료소를 건축하게 하소서.

“...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이까”(34:31)

디나의 추행 사건은 젊은 처녀의 호기심과 더불어 욕정에 눈이 먼 세 겼의 충동과 자제력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1절). 그런데 이 추행사건에는 이들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벵엘서원을 지키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28:21, 22). 그런 점에서 야곱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5절)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세겼과 그의 아비 하물은 각종 예물과 통혼을 통해 디나와의 혼사를 거론해 왔습니다. 그들의 제의는 가나안의 종주권이 바로 자신들에게 있음을 전제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민족적 종교적 우월성에 젖어 있었던 야곱의 아들들은 그 사건을 단순한 인간적 수모 이상의 치욕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을 다시 요약해 보면 디나가 세겼성 구경을 갔다가 겁탈당한 사건과(1-11절) 그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으로 두 사람을 혼인시키되 혼인 조건으로 세겼성 전체 남자에게 할례를 요구한 일(13-24), 그리고 그로 인해 시므온과 레위의 잔인한 보복 살육사건(25-31) 등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회생을 치르더라도 당신의 백성이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현실과 세상에 안주해서는 안되는 나그네요 행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 기도 제목 \ ① 믿음의 선진들처럼 세상에 안주하지 말게 하소서. ② 김영대 선교사(수단)가 진행하는 성경공부를 통해 현지인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엘이라 불렀더라』(35:15)

사랑하는 딸 디나의 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엘로 올라가라고 명하십니다. 영적인 각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영적인 방종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방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이 발견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을 향하여 이방신상을 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이들은 약속의 자녀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이방신상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야곱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야곱의 일행이 발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고로 야곱 일행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그만 충성과 믿음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9).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에 따라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을 기념하여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실 뿐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축복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베엘에서 단을 쌓은 야곱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유병세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인술과 함께 주님의 복음도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36:8)

이 스라엘 민족과 끊임없는 적대 관계에 있었던 에돔 족속의 명단에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삭의 죽음에 이어 곧바로 족장 야곱의 생애에 관한 기사로 이어지지 않고 이처럼 에서와 그 후예들이 지루하리 만큼 장황하게 소개된 것은 나름대로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에서가 야곱을 떠나 세일산에 정착한 것(8절)은 단순히 목초지의 부족 때문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일환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에서의 세속적인 삶의 모습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였습니다. 자기의 육신을 만족시키기는 했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더불어 멍에를 메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결혼이란 영적인 결합입니다. 따라서 결혼은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에서는 세상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땅의 것, 곧 사람들과 재물을 모두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의 것을 포기한 셈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충현의 성도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실한 소유물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세상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가 원주민 선교에 전념할 수 있게 하소서.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37:5)

야 꿈은 늦게 얻은 아들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의 질투를 일으키게 하였고 결국은 형제들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힌 야곱의 편애가 오히려 요셉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에 근거하여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마치 우상과 같이 여기는 대상을 품고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요셉 역시 자신의 우월성을 자랑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조심성 없이 꿈이야기를 하는 요셉의 태도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하리라는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행동과 말에 늘 주의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야곱의 실수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죄 원인 제공 죄'입니다. 요셉은 그의 꿈 이야기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말함으로써 형제들의 마음에 죄를 지을 빌미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같이 남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들의 편에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있다면 그 상처를 알고 이를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을 지나게 되면 결국 요셉의 형제들이 그리하듯이 우리의 자녀들간에도 분열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정을 화목하게 다스리기 위하여 자녀들을 주의 뜻대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신 사랑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간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가 진행하는 미전도 종족 정탐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미전도 종족 선교가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37:36)

야곱의 편애과 형들의 시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제외 한 나머지 형제들은 양치는 일을 시켰지만 요셉은 집에 남아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야곱의 실수입니다. 비록 요셉이 그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지만 다른 자녀들과 동일하게 양육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자녀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뜻대로 자녀들이 커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자녀들을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과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과보호는 책임감을 갖는 것을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배울 기회를 주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곱의 편애의 결과는 엄청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형들의 마음에 있던 적개심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표현됩니다. 형들은 멀리서 오는 동생을 보면서 그를 죽이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장자 르우벤의 만류로 요셉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두고 앉아서 음식을 먹는 모습은 정말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랑합시다.

▶ 기도 제목 \ 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어린이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유다가 가로되 …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38:23)

본 장은 유다 족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우십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유다에 대한 은혜로운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여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향하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후손을 택하셔서 약속의 씨, 즉 세상의 구세주를 낳도록 하셨습니다(창 49:8).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까? 긍휼과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택하심으로, 선택은 은혜일 뿐 인간의 선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님을 천명하셨습니다. 유다는 전혀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더욱이 유다의 죄 많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후세의 모든 세대들에게 사람이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것은 오직 그분의 긍휼과 은혜에 의한 것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성경 전체에 걸쳐 보여 주는 바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을 드러냅니다. 그분은 죄인을 취하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로 그를 부르시며 또한 사용하셔서 섬기도록 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소서.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사역을 통해 복음을 더욱 잘 증거할 수 있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 (39:2)

형들의 손에 팔린 요셉은 애굽사람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타국의 노예신분으로 온갖 고생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의 신실함을 인정한 보디발의 배려로 요셉은 그 집안 총무의 일을 담당하여 잠시의 여유를 누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잠시의 여유 조차도 보디발의 사악한 아내의 모함으로 이내 곧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행적은 결코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로, 먼 타국의 노예로, 또 이방제국의 죄수로 이어지는 비참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형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은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형통했다는 말 앞에 반드시 붙어 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형통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잘 풀리는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활’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형통한 자는 에녹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라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형통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②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그들을 ...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40:3)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먼 타국에서 죄수가 되어 감옥생활을 하는 것이란 상상하기조차 힘겨운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애굽 왕 바로를 시종들던 두 사람이 마침 큰 실책을 범한 죄로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함께 갇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위대장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 두 사람을 수종들도록 지시합니다. 의미심장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두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꿈을 꾸는 일이 생깁니다.

사실 애굽이라는 나라는 꿈을 아주 중요시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따라서 애굽에는 꿈에 관한 많은 글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꿈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그들에게 한 요셉의 말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8절). 이 말에 따르면, 이미 요셉은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에 관해 꾸준히 소개해 오고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에게 결정적인 이 순간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만남이 요셉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쭙십시오.

감옥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도울 손길을 보내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각자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② 남북이 피 흘림 없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소서.

“...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41:41)

당시의 사람들은 신들이 꿈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알려 준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는 그 꿈이 불길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번민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 중에는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8절). 마침 요셉을 기억한 술 말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요셉이 전면에서 나서게 됩니다. 요셉은 침착했습니다. 그의 침착한 통찰력은 그가 늘 하나님과 접촉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사실(16절)을 반영합니다. 그는 꿈을 해석하였고, 아무도 그 해석에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말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죄수의 신분으로 바로 앞에 나왔지만, 나갈 때는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로 고향에서 팔려온 지 1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이토록 과란만장하게 이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다의 모래 같은 백성을 애굽에서 일으키시기 위한 섬세한 구속의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한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나 자신의 영웅적인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뜻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신분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나를 통해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② 2월에도 함께 하신 주님, 3월에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소서.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역대기 서문

역대기는 사무엘상 및 열왕기 상하와 같은 시기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이다. 그러나 열왕기서와는 사뭇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곧 열왕기서는 '바벨론에 유배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반면,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한 남은 자들의 관점'에서 남유다의 역사에 중점을 두어 기록하고 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 마찬가지로 역대기서도 본래는 상,하로 나뉘지 않은 한권의 기록이었으나, 기원전 3세기경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70인 성경), 번역자들이 편의상 역대기 상,하로 구분하였다. '역대기'라는 말은 제롬이 자신의 라틴어 번역성경(벌게이트: 기원 후 385-405)에서 사용한 말로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라는 뜻이다.

역대기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에스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역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생활을 겪고 본토로 귀환한 유대인들 중 하나였는 것으로 역대기서에는 남유다적인 색채가 강하게 묻어있다. 그 색채란 주로 제사장적 관점, 즉 제사장을 중심으로 드러지는 제의와 자기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권세 등을 포함한다.

지난 달에 공부한 역대기상에 이어서 이 달에는 역대기하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자세를 가다듬고, 특히 곤고한 날들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형편을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이겨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역대하의 주요내용

1:1-9:31	솔로몬의 통치시대	17:1-22:9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1:1-17	솔로몬의 왕위 등극	22:10-23:15	아달라
2:1-7:22	예루살렘 성전 건축	23:16-26:23	요아스, 아마샤, 웃시아
8:1-9:28	솔로몬의 영광	27:1-32:33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9:29-31	솔로몬의 죽음	33:1-36:21	므낫세, 아몬, 요시아,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10:1-36:23	솔로몬 이후 유다 열왕들의 통치		
10:1-12:16	르호보암	36:22-23	고레스의 귀환 선포
13:1-16:14	아비야, 아사		

제 1 과

역대하(1)

솔로몬의 봉헌 기도

찬 송 / 342장

읽을 말씀 / 역대하 1:1-9:31

공부할 말씀 / 역대하 6:12-42

함께 읽기

다윗의 죽음으로 역대상이 마감되고, 이제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히 서가는 것으로부터 역대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맺어진 유명한 '기도의 약속' (1:7-12)에 따라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 부와 재물과 존영을 얻어 위대한 왕권을 펼칩니다. 이러한 안정된 환경을 배경으로하여 솔로몬은 여호와와의 전과 자신의 궁궐을 건축하기로 작정합니다 (2:1). 일꾼이 모집되고(2:2-18), 본격적으로 건축이 시작되어 완공됩니다 (3:1-17). 그리고 이제 성전에 필요한 여러 기물과 장식들이 제작됩니다 (4:1-22). 그리고나서 최종적으로는 제사 및 찬송과 더불어 다윗 성에 안치되었던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운반합니다(5:1-14). 언약궤 운반 후에는 솔로몬의 봉헌기념사와 봉헌기도(6:1-42),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맺는 '순종과 왕권'의 언약(7:11-22)이 길게 이어집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이 저지른 말년의 실패를 생략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봉헌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상고함으로 우리의 마땅한 사명을 새롭게 돌아보겠습니다.

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솔로몬은 기도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 시점까지 이르게 된 사건들을 깨우칩니다(6:3-11). 그 핵심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일 뿐이었습니다.

1. 솔로몬은 '간구' 하기에 앞서 '응답을 위한 호소'를 드립니다. 어떤 내용입니까(16-19, 42절)?
2. 솔로몬의 '간구'는 여러 상황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과 관련한 간구들입니까(22, 24, 26, 28, 32, 34, 36절)?
3. 여러 상황들에 대한 솔로몬의 간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4. 솔로몬의 기도에는 전세계를 향해 문을 열어놓고 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선교적입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솔로몬은 백성을 대표하여 드리는 봉헌기도에 앞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역사를 깨우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에 따른 요청' 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 하심에 대한 반응' 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있었기에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에는 항상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돌아보는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 우리 구역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2. 솔로몬은 간구를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약속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기도합니다. 매우 정직하고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근거있는 기도입니다. 나와 우리 구역의 기도는 틀에 매여 있을 뿐 아니라, 막연하고 추상적이지는 않습니까? 보다 실제적으로 근거있게 기도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3. 솔로몬이 '여호와와 전을 향해 기도할 때 들어주소서'라고 간구할 때, 그는 적어도 여호와와 전이라는 지상의 건축물로부터 어떤 신비한 효험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18절 참조). 오히려 여호와와 전으로 상징되는 '함께 하심의 약속'에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대신 어떤 장소나 상징적인 물건 등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4. 나와 우리 구역의 기도는 선교적입니까?

제 2 과

역대하(2)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찬 송 / 349장

읽을 말씀 / 역대하 10:1-16:14

공부할 말씀 / 역대하 10:1-19

함께 읽기

시대의 영웅이요, 지상 최대의 지혜자로 살던 솔로몬도 부친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가 남긴 자취에는 타락과 불신앙의 그림자가 너무나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왕상 11:1-8). 그리고 이 어두운 그림자는 즉각적으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세력을 떨칩니다. 이제 나라는 북의 열 지파와 남의 두 지파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남북간의 치열한 경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역대기서는 그 초점을 남유다에 맞추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는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왕국 분열에 따라 북이스라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과 벰엘에 세워진 금송아지로 인해 신앙적 갈등으로 고난을 겪는 중, 남유다로 망명길에 오릅니다(11:13-17). 유다 역시 르호보암과 아비야, 그리고 아사로 이어지면서 간간히 불신앙(12:1)과 자만의 싹이 피어오르지만(16:12),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만이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이 곳곳에서 명백하게 천명되고 있습니다(13:18).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솔로몬 시절에 애굽으로 망명했던 여로보암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망 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상 11:26-40을 읽고 그 경위를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
2. 왕상 11장의 내용으로 보아, 여로보암이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보장받았다는 사실은 아마도 이스라엘 내에서 널리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사람들은 그가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기다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3-5절)?
3.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백성의 요청을 듣고 누구와 의논했으며, 누구의 의견을 취했습니까(6-11절)?
4. 성경은 르호보암의 태도의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설명합니까(15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참모였던 노익장들의 말을 물리치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동료들의 말을 취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이러한 태도는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와 영웅적인 통치와 엄청난 부의 축적이 아들에게 별다른 감화를 주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오히려 르호보암은 자신이 부친을 능가하는 위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혹은 교사로서, 구역의 일꾼으로서 무엇을 통해서 자식과 학생과 구역 식구들을 돕고자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을 위해서 진실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참조, 16:9 상반절)?
2. 노익장을 물리치고 동료를 택한 르호보암의 태도는 '듣고자 하는 마음'을 닫고,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고집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주로 누구와 의논하며,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3.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특성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곧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성취되는 것을 맞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매일 은총과 긍휼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고집과 완고한 마음으로 그 기회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3 과

역대하(3)

개혁과 개혁을 망가뜨리는 힘

찬 송 / 377장

읽을 말씀 / 역대하 17:1-26:23

공부할 말씀 / 역대하 17:1-18:1

함께 읽기

여호사밧의 길은 솔로몬의 그림자처럼 전개됩니다(17:1-20:37). 그는 성실한 개혁과 말씀을 통한 통치로 시작하지만, 안정된 국제정세를 회구 하되 그 방식을 결혼을 통한 동맹관계에서 찾음으로써 유다의 영적 혼미를 부채질하는 씻을 수 없는 과오의 씨앗을 심습니다(18:1). 그는 아합의 딸 아달라를 자기의 며느리로 삼았는데, 훗날 그 며느리는 남편 여호람을 충동하여 유다의 왕통을 거의 전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십세에 죽은 남편 대신 자기 몸에서 난 자식 아하시야를 후사로 세워놓고 섭정하면서 아들을 꺾어 악을 행하게 하고(22:3), 더 나아가 아들 아하시야가 죽자 자기 손자들을 전부 잡아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 유다를 육년간 다스립니다(22:10). 아합과 이세벨의 그림자가 유다를 덮은 것입니다. 이 어둠의 그림자는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개혁(23:1-24:14)으로 잠시 걷히는 듯하지만, 여호야다의 죽음과 더불어 유다는 또다시 요아스와 아마샤 두 왕이 잇달아 암살당하고, 웃시야는 교만으로 문둥이가 되는 영적 암흑기로 접

어떻게 됩니다(24:15-26:23).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여호사밧의 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기 때문' (2절 상반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어떤 모습을 기쁘게 보셨습니까(2절 하반절-3절)?
2. 그의 개혁이 '여호와와 율법책을 가르치는 일'과 연결되어 시행되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까(7-9절)?
3. 성경은 블레셋과 아라비아 등 열방들이 여호사밧과 유다의 강성함을 인정하고 굴복한 것(11-12절)의 근본 원인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10절)?
4.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않은' 여호사밧의 행실은 어떤 방식으로 붕괴되기 시작했습니까(18:1)?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도 인정합니다. 34절에서는 준비된 자, 여호사밧의 행실을 기록합니다. 그것들은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으로 요약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와 우리 구역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종종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심각하게 의식하는 동안,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잠잠한 '영적 복지부동'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 개혁이 말씀운동과 함께 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개혁은 구호나 들뜬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 순전하고 바른 마음으로 복종하는 데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말씀은 없이 마음만 앞세운 '변화 욕구'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3.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않았던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자, 매우 합당해 보이는 방법(이스라엘과의 연혼)으로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을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히 비극적이었습니다. '합당한 방식을 이용하여 욕망의 출구를 열어놓는 일'이 나와 우리 구역에는 없습니까? 그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 4 과

역대하(4)

허물어진 영혼

찬 송 / 408장

읽을 말씀 / 역대하 27:1-36:23

공부할 말씀 / 역대하 28:1-27

함께 읽기

역대하 27장은 비극적인 진술로 시작합니다. “왕은 정직히 행했으나, 백성은 오히려 사악했다!”(27:2). 왕의 선한 통치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글픈 결과의 시작이 바로 왕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요담이 죽고 그 아들 아하스가 등장합니다(27:7-9). 아하스는 이스라엘과 아람, 그리고 신흥제국 앗수르와의 국제관계에서 줄타기를 곧잘 하였으나, 결국은 그 줄타기 덕분에 봉변을 당합니다(28:1-27. 참조, 왕하16장).

이런 영적 암흑의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개혁의 빛을 발할 인물을 내십니다. 히스기야가 등장한 것입니다(29:1-32:33). 그를 통해 유다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의 교만(32:25)과 그의 아들 므낫세의 폭정은 모든 개혁의 결과물들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결국 그의 통치가 유다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맙니다(33:1-23). 그의 타락

으로 인해 요시아의 개혁(34:1-27)도 빛이 바래고, 결국 유다는 급격한 멸망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많은 주변국들이 유다를 공략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그랬고, 또 각각 어떤 방식으로 공략했습니까(5-8절, 17-18절)?
2. 아하스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습니까(16절, 22-25절)?
3. 아하스의 위기 극복 노력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20-21절)?
4. 아하스의 극심한 영적 혼돈과 그에 따른 정신분열에 가까운 타락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공휼을 베푸십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신의 말로 다시 말해 보십시오(9-15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웃시아 정권 말기에 저질러진 영적인 무질서(26:16-21)가 그의 손자

아하스에 이르러서는 극단적인 타락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국제관계도 말할 수 없이 흐뜨러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모든 삶의 질서를 좌우한다'는 신명기적 교훈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무너짐으로 생활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했거나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나누어 보시고, '영적 질서 잡기'를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을 말해 보십시오.

2. 아하스는 아람과 이스라엘, 에돔과 블레셋 등의 주변국들과의 동맹을 거절했습니다. 그의 동맹 거절은 단지 정치적 역학관계에 대한 계산에 근거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계산 결과 앓수르에 의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결국 앓수르가 팔레스타인을 평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옳은 판단' 덕분에 그는 하나님 백성의 당당함을 빼앗긴 채, 앓수르에 굴종하는 수치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옳았으나 틀린'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는 '말은 맞는데, 결과는 틀린' 영적 혼돈이 없습니까?

3. 아하스는 자신의 분열된 영혼을 주체하지 못한 채, 닥치는 대로 우상을 수입하여 섬기면서, '요행'을 기대합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우리들이 자주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